

격표지의 의미론적 분석

황 봉 주
(충남대학교)

Hwang, Bong-Joo(1995). **The Semantic Analysis of Case Marker**. *Linguistics vol. 3*. This paper is concerned with case grammar, dealing with the semantic shades that take place when a deep case is realized into a surface form with its case marker deleted and with its case marker retained.

On research, I have come to conclude that case markers which are represented in English as prepositions are semantic specifiers indicating specifically detailed semantic relationships of deep cases to the predicate verb with which they occur, and that the semantic relationship of deep case with its case marker deleted to the predicate verb with which it is associated is *unspecified generality, entirety, wholeness*, etc.

And in view of the linguistic phenomena shared in common between Prep and Sub(Subordinator), I have categorized both Prep's and Sub's as case markers, and both NP's and clauses preceded by Sub's as Argu (Argument).

To sum up, we can get the following result:

Case Marker --> {Prep, Sub}, Argu--> {NP, Clause}, and Argu[-Spec] --> {+entirety, +wholeness}. (Argu [-Spec] = Argument realized with its semantic specifier (case marker) deleted)

I. 서론

격 범주에는 통사적 정보와 관계된 문법적 격범주 (grammatical case category)와 격문법에서 말하는 심층적 격범주(deep case category)가 있다. 문법적 격은 통사적 (syntactic case)이라고도 하며, 여기에는 주격, 직접목적격, 간접목적격, 소유격 등이 있고, 심층격은 의미격이라고도 하며, 이 심층격은 한 문장 내에서 명사구가 서술동사(predicate verb)와 유지하고 있는 일정한 의미 관계를 나타내 주는 문법 범주인 것이다.

본 연구는 격표지(case marker)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으로, 심층격이 격표지를 수반한 채 표면구조로 실현된 때와 격표지가 삭제되어 실현될 때에 나타나는 의미 차이를 기술하기로 한다.

격문법에서 논의되는 바 몇 가지 사항은 심층격의 정의와 심층격을 확인하는 기준, 격범주의 수(목록), 그리고 격표지의 의미론적 분석이다.

심층격의 정의와 정의에 관한 기준, 그리고 심층격의 목록은 그간 많이 논의되어 왔다. 이 격문법 이론도 언어 현상을 일반화된 규칙으로 설명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다른 이론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인 것이다.

위에서 주로 격표지를 의미면에서 기술한다고 하였는데, 기술의 편의를 위하여 격문법학자들이 그간 논의한 몇 가지 주장들을 검토하면서 필자 나름대로의 주장을 제시하기로 하겠다.

II. 심층격의 확인

심층격의 확인과 관련된 통사론적 특성을 Nilsen(1972)으로부터 들어보기로 하겠다. Nilsen(1972)은 통사론에 기초한 네 가지 원리를 제시하여 심층격의 확인을 시도하고 있다. 그 첫째 원리는 USE-WITH 변형원리로 주로 도구격의 확인에 응용되고 있다. 나머지 세 개의 원리도 통사론적 변형원리에 기초한 것인데 모든 격에 해당되는 특성을 기술하는데 응용되고 있다.

(A) USE - WITH 대응관계 (USE-WITH CORRELATION)

기본 가정 : 동사 use와 전치사 with의 목적어는 도구격이다.

- (1) Seymour sliced the salami *with a knife*(Instrumental).
- (2) Seymour *used a knife*(Instrumental) to slice the salami.

(B) 심층동사에 대하여 한 종류의 심층격은 한 번 일어남

기본 가정 : 두 명사구가 하나의 단문에 허용되면 서로 다른 격에 속한다.

- (3) *John*(Agent) heated *the food*(Objective) with a *blow-torch*(Instrumental).
- (4) *The blow-torch*(Instrumental) heated *the food*(Objective).
- (5) **The blow-torch*(Instrumental) heated *the food*(Objective) with a *low flame* (Instrumental).

(C) *and*에 의한 NP의 접속 원리
 기본 가정: 두 명사구가 만일 *and*로 결합된다면 같은 격에 속한다.

- (6) He robbed the bank with a *sawed-off shotgun*(Instrumental) and a *hand grenade*(Instrumental).
- (7) *He robbed the bank with *John*(Comitative) and a *sawed-off shotgun* (Instrumental).

(D) 일정한 격에는 일정한 전치사(격표지)가 대응함.
 기본 가정: 특수한 격과 전치사 사이에는 조응관계가 있다.

- (8) (∅) *Mary* (Experiencer) was struck with a *club* (Instrumental) at the concert(Location) on Sunday(Time) by *John*(Agent).

위의 예문 중 별표가 있는 문장은 비격격문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5)의 *the blow-torch*와 *a low flame*은 그 음식을 데우는데 사용된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the blow torch*와 *a low flame*은 동사 *heated*에 대하여 도구의 의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두 개의 도구격 중 하나(*the blow-torch*)가 Agent로서 다른 것 (*a low flame*)을 통제(control)하고 있는 것이다. *the blow-torch*는 [+controller]의 격자질(case feature)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a low flame*은 [+controlled]의 격자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부적격한 의미구조가 되는 것이다. [+controller]는 Agent의 본유 자질이고, [+controlled]는 Instrumental의 본유자질인 것이다.

(7)의 *with John*은 동반격이고 *with a sawed-off shotgun*은 도구격이다. 따라서 동반격과 도구격은 'and'로 접속될 수 없기 때문에 비격격문인 것이다.

(8)의 예문을 보면, 일정한 격은 일정한 격표지인 전치사를 수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주격과 동사 다음에 오는 목적격 자리에 나타나는 심층격은 그 격표지인 전치사가 삭제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일정한 격에는 일정한 격표지가 수반된다고 하였지만 전부 그렇지가 못하다. 하나의 심층격이 서로 다른 여러 개의 격표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격표지가 서로 다른 심층 격에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심층격의 확인에 관한 네 가지의 원리를 위에서 소개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해보기로 하겠다.

우선 USE - WITH의 대응 원리부터 고려하여 보자.

- (9) a. Seymour *used a knife* to slice the salami.
 b. Seymour sliced the salami *with a knife*.
- (10) a. John *used spikes* to nail the coffin shut.
 b. John nailed the coffin shut *with spikes*.
- (11) a. I warmed the food *on the stove*.
 b. I *used the stove* to warm the food.
 c. I warmed the food *with the stove*.

(9a)와 (9b), 그리고 (10a)와 (10b)는 USE - WITH의 대응관계 원리에 의하여 동사 use의 목적어와 전치사 with의 목적어가 도구격임을 알 수 있다. 이 USE - WITH 대응관계 원리에 의존하여 도구격을 확인한 격문법학자는 Langendoen(1969), Lambert(1969), Binkert(1970), Morin(1969), Pam(1970) 등이다.

(11a)의 *on the stove*는 처격이지만 도구격의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11a)를 동사 use를 사용하여 (11b)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고, 또 (11c)에서 보듯이 *on the stove*를 *with the stove*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다(Lambert, 1969).

다시 말해서 (11c)의 *with the stove*는 도구격이지만 역시 처격의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이다. Nilsen(1972)은 use의 목적어는 도구격이지만, with의 목적어는 도구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use는 [+controller]라는 격자질과 use의 목적어는 [+controlled]의 격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with의 목적어는 반드시 도구격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USE - WITH 바꿔쓰기 즉, USE - WITH 대응원리에 어긋나는 예문을 Chomsky(1969)에서 보고 논의해 보기로 하자.

- (12) a. John *used his connections* to further his career.
 b. *John furthered his career *with his connections*.
- (13) a. John *used the classroom* to propogandize his favorite doctrines.
 b. *John propogandized for his favorite doctrines *with the classroom*.
- (14) a. John *used the mallet* over and over again to reduce the

statue to rubble.

- b. *John reduced the statue to rubble *with the mallet over and over again*.

위 예문에서 use의 목적어를 볼 때, (12a)와 (13a)에서는 구체적인 물체가 아닌 추상성의 의미를 지닌 명사이고, (14a)에서는 구체명사이다. (12a)와 (13a)의 use는 "교묘히 조종한다, 농간부린다 (to manage or utilize skillfully, to manipulate)"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고, (14a)의 use는 "구체적인 도구를 사용한다"는 뜻이다.

(12)와 (13)의 경우, *with his connections*와 *with the classroom*은 *used his connections*와 *used the classroom*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래서 (12b)와 (13b)의 문이 비적격한 문인 것이다.

(14)의 경우를 보면, *over and over again*은 (14a)에서와 같이 *used*에 관계된 빈도부사이다. 그런데 (14b)에서는 도구격인 *with the mallet*과 쓰이고 있어서 비논리적 의미구조를 이루고 있다. 바로 이것이 (14b)가 비적격문이 된 이치이다.

의미론적인 면에서 (12)와 (13)에 있는 use와 (14)의 use는 동음이의어(homophone)인 것이다.

- (15) a. John *used* a gun to kill him.
b. John killed him *with* a gun.

- (16) a. John killed him *with* a bullet.
b. *John *used* a bullet to kill him.

(15a)와 (15b)는 USE - WITH 대응원리에 부합하는 적격한 문인데 반하여 (16a)와 (16b)는 그렇지가 못하다. (16a)의 *with a bullet*은 *with a gun*을 함의하지만, (16b)의 *used a bullet*은 *used a gun*을 함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적격한 문이라고 한다. 이것은 또한 도구격의 위계(a hierarchy of Instrumentality)에 근원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use는 다른 도구격에 의해 통제된(controlled) 도구격과는 같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6b)에서 도구격인 a bullet은 또 하나의 도구격인 gun의 통어를 받으므로 a bullet은 use의 목적어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도구격은 인간 신체의 어떤 부분에 의하여 통제된다는 점에서 이차적인 도구격인 것이다. 그러니까 (16a)의 a bullet은 삼차적 도구격이 되는 셈이다.

- (17) John killed him *with* a gun.
(18) John *used* his finger to pull the trigger.

- (19) *John killed him *with his index finger*.
 (20) *John used *his index finger* to kill him.

(17)은 (18)을 함의하지만, (19)와 (20)같이는 말하지 않는 것이다.

- (21) a. The man used a bat to break the window *with a ball*.
 b. *The man broke the window *with a bat (with a ball)*.
 (22) a. John used a stepladder to change the lightbulb.
 b. *John changed the lightbulb *with a stepladder*.

위 예문 (21b)와 (22b)의 비적격성은 행위의 직접 원인이 되는 도구격이 보통 표면구조에 *use*의 목적어로 나타난다는 의미론적 제약에 기인한다고 Fillmore(1970, LSA)는 말하고 있다.

(21a)를 보면 들창에 직접 충격을 가한 도구격은 *a ball*이다. 또 *used a bat*을 *with a bat*으로 바꾸어 쓸 때 (21b)에서 보듯이 *with*-phrase가 두 개 나란히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동일한 격은 *and*로 접속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C)의 *and*에 의한 NP의 접속 원리를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에 의하여 *with a bat and a ball*로 표현한다고 해도 (21a)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 (23) a. The man used a bat to break the window *with a ball*.
 b. The man broke the window *with a bat and a ball*.

(23b)가 (23a)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a bat*와 *a ball*이 각기 들창을 파괴한 직접 원인을 나타내주는 도구격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Nilsen(1972)은 도구격을 확인하는데 USE-WITH 대응관계 원리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Fillmore(1970, LSA)도 이 USE-WITH 대응관계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use*와 *with*는 공히 [+Cause]라는 격자질을 함의하고 있으나, *use*는 *with*와는 달리 또 [+Intent]의 격자질을 함의하고 있다.

- (24) a. John squashed the eggs *with his boots*.
 b. John used *his boots* to squash the eggs.

(24a)는 중의성이 있으니, 그 하나는 "John이 고의로 계란을 그의 구두로 짓밟겠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John이 아무

런 의도없이 그저 그의 구두로 계란을 밟아 으깨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구격인 with-phrase는 의지 [+Intent] 혹은 무의지[-Intent]의 자질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²

(24b)의 use-phrase는 with-phrase와는 달리 의지[+Intent]의 자질만을 함의하고 있어서 “John이 의도적으로 계란을 구두발로 짓밟겠다”라는 뜻으로만 해석되는 것이다.

Nilsen(1972)은 이와 같은 예를 들면서 도구격의 확인으로 USE - WITH 대응관계 원리는 믿을 바가 못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의견으로는 그렇지 않다. 설사 USE - WITH 대응 원리에 의하여 생성된 두 문장의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못된다. 여기서 문제는 뜻의 차이가 있든 없든간에 도구격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 차이는 표면구조의 여러 제약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USE - WITH의 대응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12a, b), (13a, b), (14a, b)에서 보았는데, 그것은 use의 lexicon(사전)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 (16b), (19), (20), (21b), (22b)의 경우 USE - WITH 대응관계 원리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도구격의 위계에 의하여 그리고 도구격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동작에 직접 관계된 도구격이 표면구조에 나타나야 한다는 제약에 의해서 설명됨을 보았다.

언어 현상의 기술은 한 가지 이론으로 산뜻하게 그리고 예외없이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느 이론이 맞았느냐 어느 이론이 틀렸느냐 보다는 어떤 이론이 가장 포괄적으로 언어 현상을 합리적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다음은 심층동사에 대하여 한 종류의 격은 한 번 일어난다는 원리를 생각하여 보기로 한다. 과연 하나의 심층동사는 같은 심층격은 두 개 이상을 택하지 않는지 검토해 보자. 동일한 심층격이 두 개 이상일 때는 물론 and로 접속된 어구를 이루니까 하나의 심층격이 하나의 심층동사에 일어나는 경우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Nilsen(1972)은 이 원리는 믿을 바가 못되고 예외가 몇 가지 있다고 하며, 그 중 한 가지 예외가 대칭문(symmetrical sentences)의 경우라고 한다.

- (25) a. *John is similar to Peter.*
- b. *Peter is similar to John.*
- c. *John and Peter are similar (to each other).*

- (26) a. *John resembles Peter.*
- b. *Peter resembles John.*
- c. *John and Peter resemble (each other).*

- (27) a. *John met Peter.*
 b. *Peter met John.*
 c. *John and Peter met (each other).*

위 대칭문에서 보듯이 두 개의 NP를 바꾸어 놓아도 뜻의 차이는 없는 것이고, 있다면 두 개의 NP 중 어떤 것을 주어(화제격 주어)로 선택하였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칭문에서는 동일한 심층격이 두 번 일어난 것이다. 위 예문의 a와 b의 표면구조만을 보면 동일한 심층격이 하나의 단문에 두 번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칭동사나 형용사는 그 심층구조에 있어서 and로 접속된 명사구(복합주어)를 주어로 취하고 있는 것이다. 위 예문중 c를 보면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 예문 (25), (26), (27)의 각 (a), (b), (c)문은 소위 동의문(synonymous sentences)이고, 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체상의 동의문인 것이다.

그리고 (c)문장 보다는 (a)와 (b) 문장이 좀 더 보편적인 표면구조라고 할 수 있다.

- (28) *Kruschev hammered the table with his shoes.*
 (29) *John is sawing his meet.*
 (30) *John is cutting his meet with a knife in a sawlike fashion(Manner).*

(28)의 동사 *hammer*는 그 자체 속에 도구격을 함유하고 있어서 하나의 단문 속에 두 개의 도구격이 사용되어서 심층동사에 대하여 한 종류의 심층격은 한 번 일어난다는 원리를 위배한 예외의 경우같이 보일 수도 있겠다. Langendoen(1970)은 그렇지 않고, 동사 *hammer*는 *in a hammerlike fashion*의 뜻인 양태격(Manner)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시 (29)의 예문을 들고 있다. (29)를 (30)으로 다시 씌우므로 *sawing*을 *cutting in a sawlike fashion(Manner)*로 기술하고 있다. Langendoen의 이와 같은 설명도 다음과 같은 예외문은 설명을 할 수 없다고 Nilsen(1972)은 주장하고 있다.

- (31) *John hammered the window relentlessly(Manner) with his shoe (Instrumental).*

(31)의 문장은 이미 Manner인 *relentlessly*와 Instrumental인 *with his sho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hammered*가 Manner Case나 Instrumental Case를 함의하고 있다면, 어찌 되었든지 하나의 심층

동사에 동일격이 두 번 나타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 “사정없이 (relentlessly)”라는 표현은 어떤 행위동사를 수식하는 강조사(Intensifier)로 보아야 한다.

- (32) **The fire ruined the neighboring apartment through smoke damage.*
- (33) **Heat / pressure / the sun created difficulties with mortar and bricks.*
- (34) **The fire ruined the country by the flood.*

위 (32)는 두 개의 Force Case(역격)가 하나의 심층동사와 공기했기 때문에 비적격문이고, (33)의 경우는 역격과 재료격(Material Case)이 동일한 격의 하위구성자라는 이유로 부적격문이라고 Lambert(1969)는 설명하고 있다. *create*의 주어는 최소한도 행위자격이어야 한다. *create*의 선택제한 때문에 비적격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 (34)의 경우도 두 개의 역격이 단순문에 사용되었기에 비적격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the fire*와 *the flood*의 의미 제약 때문에 비적격문이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불이 물을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34)의 문은 비적격문이라고 Nilsen은 말하고 있다.

또 Nilsen은 비적격문의 한 원인으로 표면통사구조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35) *The child pounded in the nail with a hammer.*
- (36) *The child pounded in the nail with his father.*
- (37) ?**The child pounded in the nail with a hammer with his father.*
- (38) *The child, in the company of his father (or accompanied by his father or along with his father) pounded in the nail with a hammer.*

(37)의 문장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상하거나 혹은 비적격문이라고 보는 이유는 두 개의 with-phrase를 계속 연결해서 쓰지 않는다는 표면구조의 제약때문인 것이다. (37)에 대한 (38)이 이를 잘 설명하여 주고 있다.

Nilsen(1972)에 의하면 심층격들이 문장의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표면구조의 제약도 문장의 적격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의 심층동사에 두

개의 동일한 격이 사용되면 무조건 비문법적 문이 된다는 것을 거절하고 있다.

(37)의 문장을 볼 때, 두 개의 with-phrases가 계속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대조적인 표현이 되지 못하고, 혼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흥미도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며, 의미 제약, 표면구조의 제약 등 복잡한 문제가 영겨있는 것을 보았다.

다음은 and에 의한 NP(심층격)의 접속 원리에 관하여 논하기로 하겠다.

Fillmore(1968)에 의하면 같은 심층격의 명사구는 결합할 수 있다고 한다.

- (39) *John broke the window.*
- (40) *A hammer broke the window.*
- (41) **John and a hammer broke the window.*

(41)이 비적격문인 것은 주어를 이루고 있는 두 명사구의 결합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John은 Agent이고 a hammer는 Instrumental이기 때문이다. John과 a hammer는 서로 문법적으로 상이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39)와 (40)을 결합해서 (41)을 생성했을 때, 그 의미는 두 문장 (39)와 (40)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다.

- (42) **Seymour sliced salami with Sheila and a knife.*
- (43) **Seymour sliced salami with enthusiasm and a knife.*
- (44) **John and the knife killed the tiger.*
- (45) **John and the earthquake shattered the window.*

(42)의 경우는 동반격인 with Sheila와 도구격인 with a knife가 서로 상이한 심층격인데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비적격문이 되고, (43)의 경우는 양태격인 with enthusiasm과 도구격인 with a knife가, (44)의 경우는 행위격과 도구격이, (45)는 행위격과 역격이 각각 결합하여 있기 때문에 비문(비적격문)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Agent와 Instrumental은 (44)가 말해 주듯이 the tiger를 죽일 수는 있다. 그러나 and에 의해서 결합될 수는 없다. 그들은 서로 다른 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예외가 있다고 말하는 Lambert(1969)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자.

(46) *The computer and the US master played the chess.*

Lambert는 (46)이 보여 주듯이 도구격인 *the computer*와 행위 자격인 *the US master*가 결합하였는데도 적격문으로 받아들여지니, 동일한 격만이 결합할 수 있다는 원리는 심층격의 확인에 결정적인 기준이 못된다고 말할 수 있겠다.

Nilson(1972)은 어떻게 되었든지 *the computer*가 [+controlled]의 격자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controller]의 격자질을 가진 Agent인 *the US master*의 통제를 받으면 도구격이라고 간주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Agent인 *US master*는 chess를 즐기기 위하여 *computer*의 여러 기능을 조작하면서 chess 게임에 필요한 자료와 규칙을 입력하는 등 *computer*를 control했을 것이다. 이 시점까지의 *computer*는 틀림없이 [+controlled]의 자질을 가진 Instrumental인 것이다. 이제 *US master*와 *computer* 사이에는 경기가 시작되는데 이 시각부터 *computer*는 의인화(personification)에 의하여 [+controller]의 격자질을 가진 Agent인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 Donna Ash(1970)의 예문을 보자. 이 예문은 영어와 일본어에서 도구격과 양태격이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47) *anata wa tsuchi to kugi to ki soshite konkite teeburu o tsukure masu.*

(48) *With a hammer, nails, wood, and patience, you can build a table.*

위 (48)에서 *a hammer, nails, wood*는 Instrumental이고, *with patience*는 양태격이다. 어떻게 양태격이 도구격과 결합할 수 있는냐 하는 문제다. 보다시피 (48)은 적격문이다. 그러니 도구격과 양태격이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로, 도구격과 양태격의 결합은 예외일 수도 있다. 둘째, 도구격과 양태격은 좀 더 심층에서는 동일한 격의 구성원리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다.

Nilsen(1970)은 특수한 효과를 내기 위하여 (48)과 같이 도구격과 양태격이 'and'로 결합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는 다르다. 물론 특별한 표현의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말에는 동의가 간다. 그 특별한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역시 *with patience*를 *with a tool of patience*(인내라고 하는 공

구로)로 즉, 양태격을 도구격으로 전환시켜서 해석하여야 한다.

다음은 격표지(Case Marker)로서의 전치사를 논의하기로 하겠다.

Fillmore(1968)에 의하면 Agent의 격표지는 by, Instrumental의 격표지는 Agent가 없을 때는 by, 그 이외의 경우는 with, Objective와 Factitive(작위격)의 격표지는 전형적으로 \emptyset , Benefactive(수익격)의 그것은 for, Dative의 격표지는 to, Locative와 Time은 그 각각의 명사의 특성에 따라 lexicon으로부터 적의한 전치사를 택하여 격표지로 삼는다.

Fillmore의 격표지 규칙을 따라 심층격의 확인에 응용하는 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Lambert(1969)는 Fillmore(1968)의 격표지 규칙은 완전한 것이 못되고,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한다. Nilsen(1972)은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격표지 규칙은 진실성있는 일반화의 규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규칙을 격확인과 격부과의 수단으로서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명확한 것은 격과 격표지 사이에 일대일의 관계(a one-to-one relationship)가 결코 없는 것이다.

Fries(1940)에 의하면 표준영어와 통속영어(vulgar English)에 사용된 전치사의 예를 보면, 전자의 경우 92.6 퍼센트와 후자의 경우 84.4 퍼센트가 at, by, for, from, in, of, on, to, with 등 아홉 개의 전치사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하나의 전치사가 여러 가지 의미와 용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Oxford Dictionary에 의하면, 이들 아홉 개의 전치사 뜻을 합하여 평균한 숫자는 36.5라고 한다. 엄격히 말해서 동음이의어라 할 수 있다.

- (49) He went with John(Comitative).
- (50) He remained with John(Locative).
- (51) He hit the ball with a bat(Instrumental).
- (52) He saw a monster with six heads(Possessive).
- (53) He stocked the stream with fish(Objective).
- (54) She sang with unexpected enthusiasm(Manner).

위의 예에서 각기 다른 심층격이 한 가지 격표지 with를 수반하고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전치사가 심층격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만한 기준이 못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5) I hit him with a rake(Instrumental).
- (56) We made the trip by auto(Instrumental).
- (57) We came the whole way in a car(Instrumental).

- (58) We came on horseback(Instrumental).
 (59) He died from an overdose of sleeping pills(Instrumental).

위 (55)에서 (59)까지의 밑줄친 표현 어구는 도구격인데도 각각의 격표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역시 격표지인 전치사가 심층격의 확인 기준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하여야 한다. 만일 도구격의 확인에 있어 의미 자질을 사용하여 도구격을 결정한다면 격표지의 경우보다 좀 더 믿을만한 기준이 될 것이다. 즉, 도구격 관계란 Agent가 도구격을 지배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55)~(59)의 밑줄친 부분이 설사 다른 격표지를 대동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밑줄친 부분이 도구격이라는 것을 결정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Nilsen(1972)은 심층격의 확인과 결정에는 의미자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격문법의 근본 원리가 서술어(서술동사, 서술형용사, 서술명사, 서술부사 등)와 그 나머지 구성소(명사구)와의 의미관계를 기술하여야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술할 수 있다는데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Nilsen의 말은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Nilsen(1972)의 다음과 같은 말에 귀를 기울여 보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격문법이란 보편문법으로서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격이란 심층구조와 관계된 문제이고, 격표지인 전치사는 표면구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어떤 언어는 전치사가 거의 없고, 어떤 언어는 전치사가 전혀 없다. 때때로 전치사는 문법적 의의 외에도 의미론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처격과 시간격에서 이 사실은 옳다. 또 심층구조에서 보면, 어떤 심층격은 단순한 전치사구라든가 명사구라기 보다는 하나의 문장이며, 이 문장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 (60) a. John broke the window with a hammer(Instrumental).
 b. John used a hammer.
 c. John broke the window.
 (61) a. John won the game by kicking a field game(Manner).
 b. John won the game.
 c. John kicked a field game.
 (62) a. John decided that he wanted a new girlfriend(Objective).
 b. John decided something.
 c. John wanted a new girlfriend.

(60)~(62)에 있어서 각 (a)는 (b)와 (c)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지금까지 심층격의 확인과 관련된 통사론적 특성으로 네 가지 원리를 소개하면서 필자 자신의 견해도 밝혔지만, 고려하여야 할 점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다. 이것은 흥미도 있으며 도전적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격표지의 삭제 현상과 관련된 의미론적 면을 논의하기로 하겠다.

III. 격표지의 의미론적 분석

모든 심층격은 기저구조에서 격표지를 수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저구조에서는 전치사구, 명사구, 부사구 등의 구별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들 심층격이 통사규칙인 구절구조규칙에 의하여 표면구조로 실현될 때, 주어의 자리와 제일 목적어의³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 심층격은 지니고 있던 격표지를 상실하고 명사구로 나타나는 것이다.

심층격의 격표지가 삭제되어 표면구조에 나타날 때와 표면구조에 격표지를 수반하고 나타날 때에 어떤 의미론적 의의가 있는가를 본 장에 주로 논의하기로 하겠다.

- (63) a. John smeared paint on the wall(Locative).
 b. John smeared the wall(Locative) with paint.
 c. The wall was smeared with paint(Instrumental).
- (64) a. John planted peas and corn in his garden(Locative).
 b. John planted his garden with peas and corn(Instrumental).
 c. John's garden was planted with peas and corn.

위 예문은 Fillmore(1968 : 48)에 있는 것으로 심층격이 주어의 위치와 제일목적어의 위치에 오게 되면 격표지가 삭제된다는 현상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위 예에서 처격인 *the wall*과 *in the garden*, 그리고 도구격인 *with paint*와 *with peas and corn*이⁴ 각기 제1목적어로 실현될 때 각기 격표지가 삭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의미의 차이가 이런 경우 생기는 것이다. (63a)의 경우는 벽의 일부가 페인트로 더럽혀졌다는 해석이고, (63b)와 (63c)는 벽 전체가 온통 더럽혀졌음을 뜻한다. (64)의 예문도 (63)의 예문과 같이 해석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고 다시 생각하기로 하자.

- (65) a. Bees are swarming in the garden.
 b. The garden is swarming with bees.

- (66) a. He sprayed paint *on the wall*.
 b. He sprayed *the wall* with paint.

(65a)는 정원 일부에 벌이 우글거린다고 해석되는데 반하여, (65b)는 정원 전체가 벌로 가득차 우글거리고 있는 해석된다. 그리고 (66a)와 (66b)도 같은 해석으로 (66a)는 페인트가 벽의 일부분에 칠해져 있고, (66b)는 벽 전체가 페인트로 덮혀 있음을 뜻한다. 또 문제는 제일목적어의 위치는 초점의 위치이기 때문에 의미의 차이가 생긴다고 Fillmore(1968 : 48)은 말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주어의 위치도 초점의 위치이기 때문에 (65a)와 (65b)에서 보여주는 의미의 차이가 야기된다고 볼 수 있는가? 다음 예문을 검토하여 보기로 하자.

- (67) a. Mary has *the children* with her.
 b. *The children* are with her.
- (68) a. He blamed *the accident* on John.
 b. He blamed *John* for the accident.

위 예문에서는 제일목적어가 주어의 위치에 초점을 둔다 해도 의미의 차이는 그리 심하지 않다.

필자의 판단은 이리하다. 이와 같이 의미의 차이가 심하게 생기는 격범주는 처격이다. 처격은 특히 이차원의 넓이일 때 그러하다. 심층격이 격표지와 같이 실현되면 그만큼 그 심층격의 의미는 세밀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심층격이 여러 가지의 격표지인 전치사를 수반하고 표면구조에 실현되면 그만큼 여러 가지로 세밀화되는 것이다. 격표지를 의미 상술자(semantic specifier)라고 규정하기로 하자.

심층격의 기저구조는 격표지+격범주로 되어 있는데, 이 때에 격범주를 논리학의 용어를 따라 논항(argument 혹은 actant)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논항에 해당하는 것이 NP이고, 격표지에 해당하는 것이 전치사라는 것을 확인하여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종속접속사(subordinator)도 격표지로 간주하고, 따라서 논항도 NP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clause도 논항으로 수립하기로 한다. 다음 예를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 (69) a. I called him up *as soon as I arrived in Seoul*. (Time)
 b. I called him up *on arrival in Seoul*. (")
- (70) a. He waved *when he saw her*. (")

- b. He waved *at the sight of her*. (")
- (71) a. He left *before the meeting began*. (")
- b. He left *before the meeting*. (")
- (72) a. I was there *while the riots were raging*. (")
- b. I was there *during the riots*. (")

다음 예는 동일한 논항에 서로 다른 격표지가 수반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그만큼 의미가 세분하게 상술되는 경우이다.

- (73) a. The moon has risen *above the horizon*. (Locative)
- b. The sun has just sunk *below the horizon*. (")
- (74) a. He went *to London*. (")
- b. He left Seoul *for London*. (")
- c. He started *from London*. (")
- d. He remained *in London*. (")
- (75) a. I hit him *with a rake*. (Instrumental)
- b. We make the trip *by auto*. (")
- c. We came the whole way *in a car*. (")
- d. He died from an overdose *of sleeping pills*. (")

이제까지 논의한 격표지, 논항, 격표지의 삭제시 의미 변화 등을 공식화하여 정리하여 보기로 하겠다.

$$(76) \text{ CM}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Prep} \\ \text{Sub} \end{array} \right\}$$

(CM=Case Marker, Prep=Preposition, Sub=Subordinator)

- (77) Prep → at, in, on, with, by, from, to, ...
- (78) Sub → if, as, as soon as, now that, before, ...

$$(79) \text{ Argu}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NP} \\ \text{Clause} \end{array} \right\}$$

(Argu=Argument)

- (80) 격표지 삭제에 따른 의미 변화 규칙

Argu → { +entirety
+wholeness }

(Argu[-spec]) = 의미상술자 격표지가 삭제된 논항)

다음 예문을 (80)의 격표지 삭제에 따른 의미변화 규칙과 연계하여 고찰하여 보자.

- (81) a. John planted peas and corn *in the garden*. (Locative)
- b. John planted *the garden* with peas and corn. (")
- c. *The garden* was planted with peas and corn. (")

- (82) a. They loaded *the truck* with potatoes. (")
- b. *The truck* was loaded with potatoes. (")

- (83) a. *They loaded *the truck* with potatoes, and then carrots. (")
- b. **The truck* was loaded with potatoes, and then carrots. (")

- (84) a. *They loaded *the truck* with a sack of potatoes. (")
- b. **The truck* was loaded with a sack of potatoes. (")

- (85) a. They loaded a sack of potatoes *on the truck*. (")
- b. They loaded a sack of potatoes *on the truck*, and then carrots. (")

위의 예문 중 특히 (83a, b)와 (84a, b)가 왜 비문인가를 (80)의 격표지 삭제에 따른 의미변화 규칙을 적용하면 쉽사리 이해가 간다.

다음 예문도 (80)의 의미 규칙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면 그 의미의 차이를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다.

- (86) a. Blood is running *in the gutters*. (Locative)
- b. *The gutters* are running with blood. (")

- (87) a. Sweat was running *down his face*. (")
- b. *His face* was running with sweat. (")

- (88) a. Fish abounds *in this river*. (")
- b. *This river* abounds with fish. (")

- (89) a. John stuffed coins *into a bag*. (")
- b. John stuffed *a bag* with coins. (")

- (90) a. John piled dishes *on the table*. (")
 b. John piled *the table* with dishes. (")
- (91) a. Mary crammed food *into her mouth*. (")
 b. Mary crammed *her mouth* with food. (")

위 예문에서 각기 (a)문장의 처격과 (b)문의 처격의 의미 차이가 뚜렷하다. (a)문의 처격은 일부분의 뜻과 (b)문의 처격의 의미는 전체의 뜻을 나타낸다.

IV. 결 론

격문법에 있어서 심층격의 정의와 확인 그리고 격의 수가 몇 개나 되는지 그 격의 목록을 확정하는 것이 종래의 연구의 중요 부분이 되어 왔으며 상당한 연구의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심층격의 확인 기준으로 이용했던 네 가지 원리를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도 밝혀 미진한 부분을 상당히 설명력 있게 기술하였다. 도구격의 확인 기준으로 사용된 USE-WITH의 대응 원리에서 문제가 된 것을 use의 서로 다른 뜻을 밝혀 설명하였고(예문 (12a, b)와 (13a, b)에 대한 설명을 참조할 것), 심층동사에 대하여 한 종류의 심층격은 한 번 일어난다는 원리에서 문제가 된 대칭문의 경우를 대칭문의 기저구조를 밝혀 설명하였다(예문 (25), (26), (27)의 설명을 참조할 것). and에 의한 NP의 접속 원리에서 문제가 된 것을 의미 제약과 대조의 원리에 의하여 기술하였다(예문 (32)~(38)의 설명 참조). 일정한 격에는 일정한 전치사(격표지)가 대응된다는 원리에서 문제가 된 것을 의인화와 동격의 원리로 기술하였다(예문 (46)~(59)의 설명 참조). 제III장에서 기술한 격표지의 의미론적 분석이 본 연구의 주 내용이다. 여기서 전치사뿐 아니라 종속접속사도 격표지로 설정하였으며, 또 명사구와 절을 공히 논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논항이 격표지를 수반하고 나타낼 때와 격표지가 삭제되어 실현될 때에 야기되는 바 그 의미 차이를 규칙을 설정하여 기술하였다((81)~(90) 참조).

이상의 것을 다음과 같이 일반화하여 규칙으로 정리하였다.

$$(76) \text{ CM}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Prep} \\ \text{Sub} \end{array} \right\}$$

(CM=Case Marker, Prep=Preposition, Sub=Subordinator)

- (77) Prep → at, in, on, with, by, from, to, ...
 (78) Sub → if, as, as soon as, now that, before, ...

$$(79) \text{ Argu}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NP} \\ \text{Clause} \end{array} \right\}$$

(Argu=Argument)

- (80) 격표지 삭제에 따른 의미 변화 규칙

$$\text{Argu}[-\text{spec}] \rightarrow \left\{ \begin{array}{l} +\text{entirety} \\ +\text{wholeness} \end{array} \right\}$$

(Argu[-spec]= 의미상술자 격표지가 삭제된 논항)

다시 한 번 격문법이란 보편문법에 속하며 흥미롭고 도전적인 문법인 것을 실감하게 된다.

내 용 주

1. 한 종류의 심층격은 하나의 단문에서 한 번 허용된다는 원리는 통사격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 (i) John and Mary(Subjective Case) saw tigers and lions(Objective Case) in the zoo.
- (ii) *John(Subjective Case) Mary(Subjective Case) saw tigers and lions in the zoo.
- (iii) *John and Mary saw tigers(Objective Case) lions(Objective Case) in the zoo.

이와 같은 현상은 언어의 보편성에 속하는 것이다.

2. John이 고의든 혹은 실수든간에 계란을 그의 구두로 밟아 으갠 것은 사실이다. 이 문제는 매우 관심을 끄는 것으로 행위자와 도구격에 대한 재고를 요하는 것이다. with-phrase 도구격이 있을 경우, 행위자는 [+ Intent] 혹은[-Intent]의 자질을 가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의지적 행위자와 무의지적 행위자라는 모순된 의미 논리를 느끼게 하고 있다.

3. 제일목적어란 타동사 바로 다음에 오는 명사구를 말한다.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서다.

- (i) a. John gave a pen to Mary.
 b. A pen was given to Mary by John.
- (ii) a. John gave Mary a pen.
 b. Mary was given a pen.
 c. ?A pen was given Mary.

종래의 직접목적어는 a pen이고 간접목적어는 Mary이다. 직접목적어이든 간접목적어이든 타동사 바로 다음에 오는 NP가 수동문의 주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제일목적어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ii b)가 (ii c)보다 더 좋은 문인 것이다.

4. with paint와 with peas and corn이 도구격이라고 Fillmore(1968 : 48)에 기술되고 있는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도구격이 아니다. 왜냐하면 paint를 벽에 발라 벽을 더럽혔다는 뜻인데, paint를 벽에 칠할 때 사용되는 도구는 솔 같은 도구일 것이고, 콩과 옥수수를 정원에 심는데 사용되는 도구는 호미같은 농기구이기 때문이다. with paint와 with peas and corn은 재료격(Material)인 동시에 대상격으로 해석된다.

참 고 문 헌

- Ash, Donna. "Instrumental in Japanese"(Ann Arber, Dittoed), 1970.
- Binkert, P. J. "Case and Propositional Constructions in a Transformational Grammar of Classical Latin,"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1970.
- Chomsky, Noam.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Bloomington, mimeographed), 1969.
- Fillmore, Charles. "The Case for Case,"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edited by Emmon Bach and Robert T. Harne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68.
- _____. "Subject, speakers and Roles,"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Center), 1970.
- Fries, Charles C. *American English Grammar*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Inc.), 1940.
- Lambert, Dorothy Mark. "The Semantic Syntax of Metaphor: A Case Grammar Analysis", *Foundation of Language*, IV, 4-29, 1969.
- Langendoen, D. Terence. *Essentials of English Grammar*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0.
- Morin, Yves C. "A Second Order Case Grammar" (Ann Arbor, Dittoed), 1969.
- Nilsen, Don Lee Fred. *Toward a Semantic Specification of Deep Case*, Mouton & Co. N. V., publishers, The Hague.
- Pam, Martin D. "Goodbye Columbus, or the Case for Case" (Columbus, Ohio, mimeographed), 1970.
- 황봉주. "A Study of Universal Grammar." 「충남대학교 인문과학 논문집」II권 2호: 319-343, 1977.
- _____. "영어의 수동변형규칙에 대한 보편성." 「영어영문학연구」22: 317-336, 1982.
- _____. "On Case Markers." 「한국현대언어학회 언어연구」5: 199-205, 1988.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220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황봉주